보물 '고운사 연수전' 의미·가치 고찰하다

고운사, 11월 11일 학술대회
국내 사찰 유일 기로소 전각
2020년 '보물'로 승격·지정
연수전 특징, 활용방안 살펴


조계종 제16교구본사 고운사는 11월 11일 화엄문화템플관에서 '고운사 연수전의 가치'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고운사 연수전 모습.

조선시대 영조와 고종의 기로소 입소 기념으로 지어진 왕실 전각인 고운사 연수전(국가지정문화재 보물)의 가치와 활용방안을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조계종 제16교구본사 고운사(주지 등운)는 11월 11일 화엄문화템플관에서 '고운사 연수전의 가치'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고운사 연수전은 조선 영조(英祖, 1694~1776)와 고종(高宗, 1852~1919)이 기로소에 들어간 것을 기념하기 위해 건립된 고운사 경내의 유일 왕실 전각이다. 기로소는 70세 이상의 정2품 이상의 문관을 우대하기 위해 설치한 기구로 국왕의 경우 60세를 넘으면 기로소에 입소한다. 조선 왕실에서 기로소에 입소한 왕은 태조, 숙종, 영조, 고종 4명뿐이다.

영조 20년(1744년)에 영조의 기로소 입소를 기념하고 어첩을 모시는 봉안각으로 지어진 고운사 연수전은 이후 '기로소봉안각(耆老所奉安閣)'으로 변경됐다. 고종 황제가 광무 8년(1904년) 기로소에 들어간 것을 기념해 '축리전(祝釐殿)'으로 바꾸고, 이를 다시 '연수전(延壽殿)'으로 바꾸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조선시대 사찰 내 기로소 원당(願堂)은 순천 송광사와 의성 고운사 등 2곳이 있었으나, 송광사의 경우 현재 불당으로 바뀌며 사라졌고, 고운사에만 유일하게 남아 있어 역사적 가치가 매우 크다. 이 같은 이유로 문화재청은 지난 2020년 8월 의성 고운사 연수전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승격·지정했다.

의성군이 지원하는 '고운사 소장 기록유산 일체 조사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날 학술대회는 연수전의 건립 과정과 건축사적 위상, 관련 기록 자료, 향후 활용 방안 등에 대한 종합적 고찰이 이뤄졌다.

박순 경북불교문화원 상임이사는 '고운사 연수전의 연혁과 연수전 문서' 기조 강연에서 고운사에 소장된 연수전 관련 기록자료들의 내용을 확인하고 연수전의 건립 및 변천 과정에 대해 고찰했다. 이어진 주제 발표에서 김형수 박사(한국국학진흥원)는 '조선후기 경북지역 불교계의 재정비와 고운사의 위상'을 통해 고운사의 사세 및 변화 과정을 언급하며 연수전의 건립과 관련한 당시 불교계의 흐름을 밝혔다.

김석현 박사(명지대)는 '조선시대 기로소 건축과 의성 고운사 연수전'에서 연수전의 건축 특징을 살폈다. 그는 영조 대에 지어진 건축물과 이후 고종 대에 이르기까지 개보수 과정 및 현재 건축물의 상태 등에 대해 언급하고 보존방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고운사 연수전 단청의장의 내용과 사회적 배경'을 발표한 구본능 단청기술연구소장은 왕실 건물의 위상을 드러내는 연수전 단청의 면모를 밝히고 현재의 상태 및 복원 방안에 대해 고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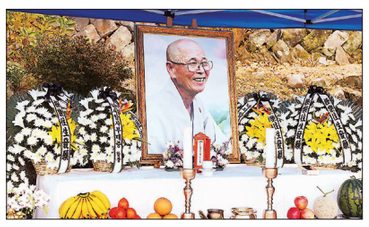
이규철 성신여대 교수는 '역사콘텐츠 시각으로 본 고운사 연수전'에서 연수전의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고운사 주지 등운 스님은 "고운사의 연수전은 그 위상에도 불구하고 면밀한 내용이 널리 알려지지 못했다"면서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연수전의 진정한 가치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라며, 향후 연수전의 보존방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박영애 영주지국장

사천 평안사 회주 은송당 보선 스님 원적

11월 8일 세수80·법랍36세 원적
서부 경남 일원서 포교활동 펼쳐
10일 사천 평안사서 영결식 봉행



사천을 비롯한 서부 경남 일원에서 포교행을 펼쳤던 사천 평안사 회주 은송당 보선 스님〈사진〉이 11월 8일 원적에 들었다. 세수 80세, 법랍 36세이다.

1943년 5월 5일 경남 산청읍 모고에서 태어난 보선 스님은 1987년 삶의 무상을 깨닫고 출가했다. 이후 1990년까지 창원 광산사 등 여러 사찰에서 수행정진했다. 1991~2001년에는 함양 화정사 주지를 지냈다.

이후 2002년부터 서부 경남 지역의 포교를 위해 사천 평안사를 개산하며 초대 주지로 활동했다. 2017년까지 평안사 주지를 지내며 승가원 휠체어 제작비 지원, 산청초교 장학금 지원, 육군 논산훈련소 군법당 신축 불사금 보시, 진주 총림사 유치원 설립 보시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펼쳤다.

또한 진주불교회관 중창불사의 초석을 놓았으며, 가야불교대학장과 자비도량참법, 금강경독송회, 군법당, 노인요양원 등 지도법사로 활동하며 지역 전법에 힘썼다.

보선 스님의 영결식은 스님이 개산한 사천 평안사(주지 지현)에서 11월 10일 봉행됐다.

평안사 주지 지현 스님은 "은송당 보선 스님은 전법과 자비 정신을 오롯이 실천으로써 보여주셨다. 훗날 자비와 보시를 실천하는 수행자를 뵙게 된다면 보선 스님의 화신으로 생각하겠다"며 "편안히 원적에 드시고 저희 곁에 속환하시어 뭇 중생들께 가르침을 주길 기원한다"고 서원했다.

안정임 신도회장은 추모사에서 "보선 스님께서는 꽃피는 봄을 좋아하시고 〈금강경〉 독송 수행을 쉼 없이 하셨다. 스님은 항상 근검절약하시며 많은 불사를 이뤘고, 어려운 이웃에게는 통 큰 보시를 하시며 무주상보시가 무엇인지를 보이셨다"면서 "스님의 육신은 가셨지만 스님의 청정하고 맑은 불성은 저희들과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보선 스님 같은 훌륭한 수행자를 스승으로 모실 수 있어 감사하다"고 추모했다.

조카 대륜 스님은 추모사에서 "스님의 마음을 잘 알아 실천하고 받들어주신 주지 지현 스님께 감사드린다"면서 "보선 스님께서 보여주신 절제된 삶은 사부대중에게 남겨주신 가르침이라고 생각한다. 후학으로서 본받고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무위자연 노래한 '진묵대사' 연극으로 제작

'천년을 뜨고 지면 : 진묵대사, 노닐다 간 자리' 초연



"한바탕 신바람 춤을 추니, 긴소매 옷자락이 곤륜산에 걸릴까 그것이 걱정이노라"

신통한 능력으로 생사를 임의로 여탈했다는 진묵대사를 소재로 한 작품이 연극무대에 올랐다.

2022년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선정된 극단 삼육오가 창작 '천년을 뜨고 지면 : 부제 : 진묵, 노닐다 간 자리'를 무대에 올렸다.

11월 18일과 19일 완주군완주향토예술문화회관에서 공연된 이번 연극은 완주군 봉서사를 비롯하여 전북지역 곳곳에 깃든 진묵대사의 행적과 설화를 바탕으로 고승의 신이한 행적을 그려낸 국내 최초의 연극이다.

조선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 외세의 침략과 당쟁으로 인해 도탄에 빠진 민중의 아픔에 동참하여 유불선 삼교회통의 경지를 펼친 진묵대사의 삶을 최초로 연극화해 그 의미가 매우 크다.

고려말 나옹선사와 더불어 석가모니 부처님의 현신이라고 불린 두 인물을 대비하며, 천년의 여정 속에 삶과 죽음의 윤회와 운명적 사랑을 아름답게 그려냈다.

극중 진묵과 희춘의 생을 넘나드는 사랑은 애달픈 해원과 상생을 희구하는 진묵대사의 인간적인 면모를 한층 부각시키며 수행과 삶의 경계에 선 인간적 고뇌를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번 작품은 46년간 무대연출가로서 명성을 쌓은 박병도 교수(전주대 공연방송연기학과)가 극작, 연출을 맡았다.

진묵대사 역에는 장제혁(극단 혜윰 대표), 희춘 역에는 이미리(극단 삼육오 대표)가 출연했다. 국내 최초로 진묵대사를 소재로 무대화 되는 '천년을 뜨고 지면(부제 : 진묵, 노닐다 간 자리)'는 현실과 비현실을 교차하여 넘나드는 무대를 통해 관극의 다채로운 감성적 무대 경험을 제공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익숙한 사람에게는 새로운 관점의 무대 표현언어 소통 경험을, 낯선 사람에게는 입체적 관극 체험에 흥미롭게 다가갈 수 있도록 연출적 노력을 기울인 작품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사)착한벗들 이주민가정 돕기

이주민 50세대에 식료품꾸러미 전달



(사)착한벗들(이사장 회일스님)과 (사)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가 이주민들의 안정적인 한국사회정착을 위해 식료품 꾸러미를 전달했다.

11월 13일 (사)착한벗들 사무실에서 열린 전달식에서 참좋은 우리절 석연스님은 지원이 필요한 50세대의 이주민 가정에 식료품 꾸러미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식료품 꾸러미는 단순한 꾸러미 지원을 넘어 도내 정착을 시작한 결혼이주 여성, 유학생, 외국인노동자 등 낯선 환경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주민들에게 앞서 거주 중인 이주민들의 경험과 지역정보 공유 등 공동체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식료품꾸러미에는 김, 계란, 양파, 애호박, 미역 등 9종의 식료품이 담겼다. 도내 이주민으로 구성된 전북이주민자원봉사단 20여 명이 휴일도 반납하고 착한벗들 사무실에서 꾸러미를 만들었다.

(사)착한벗들과 (사)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1월 10일 전라북도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추진하는 자원봉사 협력활동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지역사회봉사와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을 돕는 데 함께한다.

사단법인 착한벗들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 구현을 목표로 이주민의 권익보호 및 정착을 위한 교육, 상담, 통역, 번역, 문화체험 지원을 통해 이주민의 벗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이주여성과 다문화 자녀 등으로 구성된 전북이주민자원봉사단도 운영하고 있다.

(사)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박오상 센터장은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주민들도 우리의 이웃이고 이미 지역 공동체로 함께하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적 재능과 경험을 바탕으로 자원봉사문화 확산 및 참여 증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착한벗들 주춘매 센터장은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주민에게 관심을 가져주신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함께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불교연합회 신임회장에 도성 스님

활동보고서·사진자료집 발간



광주불교연합회 제6대 회장에 복암사 주지 도성 스님이 연임됐다. 광주불교연합회(회장 도성)는 지난 11월 11일 제10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전체 74명의 회원 중 51명 회원 가운데 40명이 참여해 만장일치로 도성 스님을 선출했다.

도성 스님은 당선소감을 통해 "앞으로의 2년간의 소임을 통해 지금보다는 더 발전하는 광주불교의 모습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스님은 "이를 위해 승가의 화합과 원융살림을 통해 건강한 단체를 만들고, 종단을 넘어 어른 스님들에게 늘 예경하고, 후배스님들과 함께 화합해 단체를 이끌고 싶다"고 말했다.

도성 스님은 1974년 백양사에서 출가해, 1981년 백양사 승가대학을 졸업했다. 백양사 교무국장, 물외암 중창, 무안 보광정사 주지, 광주 관음사 주지, 영광 불갑사 주지, 영광 마라난타사 주지를 역임했으며, 현재 광주 복암사에 주석 중이다. 백양사 인사위원장, 국가무형문화재 제139호 전통불복장 단체 보유자로 지정되었으며, 사단법인 빛고을나눔나무 이사장, 제5대 광주불교연합회장을 지냈다.

광주불교연합회는 이날 총회를 통해 수석부회장에 월인 스님, 무등 스님, 명신 스님을, 감사에 상진 스님, 혜법 스님을 선출했다. 광주불교연합회는 이날 총회에서 '2022광주불교연합회 활동보고서' 책자와 활동사진자료집을 선보였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관음사, 제3회 삼천불 공양대재 회향



광주 도심 포교도량 관음사(주지 소운)는 11월 13일 '제3회 삼천불 공양대재' 회향식을 갖고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포교원력을 세웠다.

삼천불을 공양하듯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관심과 포교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마련한 이날 행사는 1부 헌공의식, 2부 법요식, 3부 합동 천도재로 진행했다.

행사에는 소원정사 주기 도계 스님, 관음사 회주 효공 스님, 백양사 주지 무공 스님, 광주불교연합회장 도성 스님을 비롯해 100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관음사는 이날 행사의 의미를 살린 청소년 장학금 200만 원과 충장동 지역사회보장협의회에 '돌봄이웃을 위한 희망나눔' 공양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

도계 스님은 법문을 통해 "많은 신도들이 나서서 삼천 부처님을 공양하는 마음으로 불사에 참여해 관음사와 어린이, 청소년 포교에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소운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지구생명 위기를 맞이하여 삼천 부처님을 공양하듯, 생명을 소생시키고 지역사회와 어려운 이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마음으로 행사를 준비했다"고 행사의 의미를 설명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나누우리, 정기총회 및 희망나눔 자선음악회



국제구호법인 사단법인 나누우리(이사장 만우)가 11월 12일 창원 내서읍 해병대사무실에서 제17차 정기총회 및 희망나눔 자선음악회를 개최했다.

나누우리는 앞으로 캄보디아 쁘레이톰초등학교와 삼부어초등학교에 정수시설 설치 및 선풍기,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후원 활동을 펼칠 계획이며 신발, 백미, 구충제 등 8000만 원 상당의 봉사후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3년에도 지속적인 국제구호활동을 펼치며 회원 배가 운동 등 역량을 넓히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의했다.

이어 상곡문화체육센터에서 희망나눔 자선음악회를 열고 후원금 600만 원을 6명의 환우에게 전달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지리산 천은사, 성금과 자비의 쌀 전달



지리산 천은사(주지 대진)는 11월 14일 구례군(군수 김순호)을 방문해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 500만 원과 쌀 200포(500만 원 상당)를 전달했다.

대진 스님은 전달식에서 "사회가 어려울수록 더 힘들고 열악한 환경에 처한 분들의 고통은 심해질 수 있다"며 "이분들에게 사찰에서 마련한 성금과 공양미가 작지만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순호 군수도 답변을 통해 "큰마음을 내주셔서 감사하다. 꼭 필요한 곳에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지리산의 힐링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는 천은사는 매년 구례군을 통해 이웃돕기 성금과 쌀을 전달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창종 11주년 기념



(사)대한불교응공조계종(종정 법운, 이하 응공조계종)은 11월 11일 총본산 칠곡 동명사에서 응공조계종 창종 11주년 기념 대법회를 봉행했다.

응공조계종 종정 법운 대종사는 "수행을 하는 데 상을 가져서는 절대로 바른 수행을 하기 어려우니, 인생의 무상함을 알고 한 법이라도 더 자신을 반성하고 자성을 밝혀 나가야 할 것"이라며 "큰 꿈을 품고 힘찬 날갯짓을 하는 뜻깊은 날, 사부대중은 세계평화와 불교중흥을 간절히 기원하는 첫 마음을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정진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배철완 대구지사장

창원 성주사, 이태원 참사 추모 삼보일배



창원 불모산 성주사(주지 법안)가 11월 12일 경내 일대에서 삼보일배 정진을 진행했다. 이태원 참사를 추모하기 위해 마련된 삼보일배는 '슬픔을 딛고 피안의 언덕으로'를 주제로 성주사 입구 일주문에서 대웅전 앞까지 이어졌다.

삼보일배에는 주지 법안 스님, 현덕스님, 김이순 신도회장, 포교사단 및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주지 법안 스님은 회향식에서 "안타까운 모든 생명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병상에 있는 모든 분들이 속히 쾌유하시길 기원한다"며 "앞으로도 삼보일배를 통해 정진의 열기가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